



# 새 천년을 맞는 원자력계의 새로운 각오

- 司馬遷의 生涯와 그의 史觀을 생각하며 -

노 윤 래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한**

무제(漢武帝, BC 141~BC 87) 치세기(治世期)에 살았던 사마천(司馬遷)은 전한(前漢)의 유명한 사가(史家)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가 저술한 「사기(史記)」는 최초의 기전 체계(紀傳體系)를 이룬 역사서로서, 중국의 상고(上古) 황제(黃帝)부터 그가 생존한 시대까지의 대서사로, 중국 역사의 전범으로 공인되고 있다.

사기는 중국은 물론 일본·한국과 인접한 사이(四夷)를 포함하여 기술한 것으로, BC 5세기경 서양의 헤로도토스(Herodotus)가 저술한 그리스·로마 및 세계 사서(史書)의 전통 확립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거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래 사마천은 그의 역사서를 「태사공서(太史公書)」라 했는데 그의 사후 태사공기(太史公記)로 전해지고, 약(略)하여 사기라 일컬게 되었다.

사마천의 선조는 대대로 주(周) 왕실의 관직을 누리고 있었으나 선왕(宣王)때에 와서 하위직인 사마(司馬)가 되었다. 사마란 군사 또는 군용품을 관리하는 말단직인데 때로는 사관(史官)을 겸하기도 했다.

그의 부친 사마담(司馬談)은 한(漢)에 정착하여 태사공(太史公)이 되어 사서를 편찬하고 천문·역법·제사 등을 관장하는 하찮은 지위에 있었으나 육가

(六家), 유(儒), 묵(墨), 도(道), 법(法), 음양(陰陽), 명(名)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박식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가계를 이어받은 사마천은 10세때 고문(古文)을 암송할 정도로 총명했으며 20세에는 남으로 장강(長江), 북으로는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제(齊)·노(魯)의 수도에서 학업을 닦고 공자가 남긴 풍속을 두루 살피는 등 폭넓은 사적을 답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낭중(郎中)의 관직을 받았다.

BC 108년, 부친의 뒤를 이어 태사령(太史令)에 임명된 사마천은 역사서를 쓰기로 결심하고 통사(通史) 편찬에 착수했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부친의 유언이다. 그 내용은 사마 가계는 주 왕실의 태사로 오랜 옛날(禹, 夏) 임금부터 공명을 남긴 집안이나 후세에 와서 쇠락했는데 부친(談)대에서 끊어져서는 안될 것인즉 아들(遷)이 대통을 이어 반드시 태사가 되어 부친이 하고자 했던 대역사서를 완성하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부친의 사후 3년에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었고 유언에 따라 사기 집필에 착수하게 되었다.

둘째는 그의 친구였던 이릉(李陵)의 사건으로 그의 사기 집필 방향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릉은 한(漢)의 장군으로 흉노 토벌에 참전했으나 패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사마천은 친구를 구할 목적으로 그의 충절과 용맹성을 칭찬하고 변호하였으므로 마침내 무제(武帝)의 분노를 사고 끝내는 궁형(宮刑)에 처하게 되었다. 궁형이란 남성(男性)을 거세하는 형벌이다.

궁형에 처해지고 출옥하게 된 사마천은 중서령(中書令)에 임명되고 마침내 사기 130권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릉의 사건과 궁형이란 참담한 상황을 직접 겪으며 인간의 운명에 큰 회의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사실(史實)의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인간의 종합적 가치를 결정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인과 관계의 불합리성을 수정하는 것이 역사학이 지니는 특별한 뜻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제에 의해 궁형을 받은 BC 98년부터 사마천의 사기 집필 방향은 크게 변하게 된다.

즉 선대 중국인의 가치관이 문장을 통하여 입신양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처럼 사마천은 올바른 사기를 남김으로써 그의 역사적 가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즉 사기는 그의 발분(發憤)의 저서인 셈이다.

새 천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부친의 유언과 분사(憤死)를 목격하고 이릉의 사건에 휘말려 궁형을 당했던 사마천이 그의 처참한 몸골을 승화시키고 마침내 사기란 대업을 남겼듯이 우리 원자력계도 현재까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최소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기계 장치는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발전 설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동안 국내 원자력계는 설계 변경을 위주로 원전의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 변경에 의한 것보다는 기

존 설비의 사전 점검과 예방 보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다 안전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설비의 운영에 관한 기술 지침서 또는 절차서의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른바 원전의 안전 문화 정착이 시급한 문제임을 통감하게 된다.

TMI-2, 채르노빌-4, JCO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모두 설비(하드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 문화를 무시한 운영 수칙(소프트웨어)의 위반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본다.

첫째, 조직의 최고위직에서 최하위직까지 모든 구성원이 원자력의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실천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예컨대 TVA 원전 사업의 조직과 인적 구성이 U.S.-NRC로부터 재승인되기까지 원전 사업이 한동안 중단된 것은 경영층의 안전 인식 부재가 원인 이었고, PECO사의 Peach Bottom-2의 운전 면허 취소는 하위직의 안전 의식 결여 때문이었음을 명심 해야 될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족 사건(사고·고장 등)은 지휘 체계를 통해 즉각 보고되어야 하며, 불만족 사건의 발생이 고의적이 아니라면 절대로 문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문책이 두려워 보고를 은폐하게 되면 사례 연구를 통한 교육이 불가능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정보는 숨김없이 교류되어야 한다. INPO·WANO·IAEA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한 우리 나라가 이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면서 국내 정보의 제공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국내 원전 사업은 국제 무대에서 외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